

한국 대학에서 영미소설 가르치기

최재석
(충남대학교)

Choi, Jae-Suck. (2005). How to teach English novel in Korea.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1), 225-243.

Korean students in English novel class read presentable papers about a novel, but if asked about some parts of the novel, they are helpless. How do they know the whole novel without knowing its parts? Because most Korean students cannot read through an English novel in a short time, they are awfully pressed with preparation for papers to be presented in the class. That makes their papers composed entirely of appropriated ideas from references. Being conscious of students' inability to read through a novel, some teachers select and read only some important parts or chapters of the novel. That makes students take a novel not as literary art, but as a prose work for abstract idea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I propose chapter analysis. Attentive reading new critics applied to poetry and short story is applicable to the chapter of a novel. Because no critic or scholar analyzes a novel chapter by chapter in his/her articles or books, students cannot wholly mosaic their papers with ideas from references. Chapter analysis will enable Korean students to interpret a novel with their own view point. This paper includes such sections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fictional chapters, some items to be considered for chapter analysis in the class, and examples of analysis of a short story and two chapters from a novel.

[Korean students/English novel/chapter analysis/new critics, 한국 학생들/영소설/장 분석/신비평가들]

I. 들어가는 말

소설을 가르치는 방법은, 시나 단편소설에 비해, 체계적으로 논의된 일이 적었다.

스콜스(Robert Scholes)가 지적하는 대로, 시의 경우에는 신비평을 통해서 시 분석 방법이 다각도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시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를 가르쳐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소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들이 소설을 가르칠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p. 42). 신비평가들이 소설분석에도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신비평의 형식주의적 이론은 소설에 적용되기 어려웠다. 브룩스(Cleanth Brooks)와 워런(Robert Penn Warren)이 『소설의 이해』(*Understanding Fiction*)를 썼지만, 이 책에서 다룬 작품들은 소설이 아니고 단일한 효과를 위해 통일성이 중시되는 단편소설들(short stories)이다. 그리고 신비평가들은 제임스(Henry James), 콘라드(Joseph Conrad), 조이스(James Joyce), 울프(Virginia Woolf) 등의 현대소설에 나타나는 시점분석에 관심을 보였지만, 그러한 접근방법은 19세기 소설을 제외시켰을 뿐 아니라(Spilka, p. vii), 시점이 소설의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점을 중시하는 서사분석 교육은 소설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분석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스콜스는 소설의 시학, 다시 말해서 소설 형식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완성되면 소설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p. 42), 리드(Walter Reed)의 말대로, 소설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서 소설의 시학을 확정한다는 일 자체가 가능할 것 같지 않다(p. 62).

소설을 가르칠 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작품의 길이가 길고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서정시나 단편소설은 한 자리에서 읽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낼 수 있지만, 300쪽 정도의 소설의 경우 장시간에 걸쳐서 읽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한 두 시간에 해당 작품에 대해서 논의를 끝내기도 어렵다. 또한 시나 단편소설은 통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용이하지만, 소설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고 인물도 여러 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서 통일성을 찾기 힘들다. 특히 작품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영문장의 독해력에 한계가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70년대까지 영미소설 시간에는 문학으로서의 소설을 가르치기보다는 번역에 치중했었는데, 지금도 많은 대학에서 번역과 문공공부를 병행시키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일일이 번역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우수한 일류급 대학에서도 외국어로 영문장을 읽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영미소설의 길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생들의 부담은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대부분의 소설 분석방법 안내서나 소설이론서는 작품의 통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독서속도가 느린 한국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한국 대학의 영미소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수업시간에 소설 이론을 적용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소설론의 고전으로 알려진 포스터(E. M. Forster)의 『소설의 양상』(*Aspects of the Novel*)으로부터 시작해서 케니(William Kenney)의 『소설 분석 방법』(*How to Analyze Fiction*), 스테빅(Philip Stevick)이 편집한 『소설의 이론』(*The Theory of the*

Novel), 그리고 리몬 케넌(S. Rimón-Kenan)의 『소설의 시학』(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에 이르기까지 플롯, 인물, 배경, 시점, 문체, 주제 같은 소설의 여러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소설의 요소들은 작품을 통독하지 않고는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설 한 권을 읽는 데에 여러 날 혹은 여러 주일이 걸리는 한국 학생들과 첫 주일이나 둘째 주일의 수업 시간에 교재로 택한 작품의 플롯이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이 읽지도 않은 작품에 대해서 선생이 일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문학 수업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독할 때까지 수업을 하지 않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선생은 나름대로의 수업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학생들이 작품을 읽어 나갈 만한 영문 독해력이 없을 경우에는 작품의 처음부터 번역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그렇게 번역만 해나가는 선생은 별로 없다. 많은 선생들은 첫 주에 작가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다음, 학생들의 독해력의 한계로 인해서 전체를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최정선의 경우처럼(p. 162) 중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학생들과 함께 읽으면서 선생이 그 의미를 설명해 준다. 또는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일부는 선생이 설명해 주고 일부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어서 발표하게 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독해력이 뛰어나거나 대학원 수준이라면 작품에 대한 소설 요소별로 혹은 주제별로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부 과정의 학생들의 독해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통독을 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영미소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중요한 부분만을 골라 읽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중요한 부분이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제외시킨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중요한 부분만을 부각시킬 때는 중요한 한두 가지 주제만을 추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품 전체가 지니는 문학작품으로서의 짜임새를 알아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소설을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산문으로 보게 된다. 요즘 많은 영문학자들이 여성주의나 탈식민주의 같은 이데올로기 비평에 몰두하고 있어서 소설을 읽는 것은 그 작품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품의 주요 부분만을 읽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염려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은 특별한 문제를 찾아내서 논하는 학자적인 혹은 비평가적인 작업과는 다르다. 여기서 우리는 작품의 정독을 강조하는 신비평이 문학교육에 크게 기여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영문 독해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제별로 발표하도록 하는 수업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이 서너 권의 작품을 다룬다면 학생들은 작품과 참고문헌을 착실히 읽고 과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수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대부분의 선생들은 여러 권의 작품을 다루게 마련이다.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영문 이해력에 한계를 느끼게 마련이어서 모르는 단어와 막히는 문장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들이 애써서 작품을 한 번 읽고 나면 그 작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참고문헌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참고문헌에 의지해서 과제를 준비한다. 시간이 없을 때는 참고문헌만 이것저것 읽고 소위 짜깁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짜깁기가 습관이 된 학생들은 석사논문을 쓸 때도, 심지어 박사논문을 쓸 때도 짜깁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주요 부분만을 골라서 읽는 수업도 주제별로 발표시키는 수업도 작품을 정독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독창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한다. 학생들에게 작품에 관한 과제를 내주고 발표하라고 하면 그럴듯하게 해낸다. 그런데 그들이 언급하지 않은 몇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입을 다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에서도 침묵을 지키기 때문이다. 아마도 학자들이나 비평가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그 부분들이 그들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에 관련이 적기 때문에 그것들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전체를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에서 영미소설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장(chapter) 분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장의 의미와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장 분석의 예를 위해서 조이스(James Joyce)의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 수록된 <자매들>("The Sisters")과 그린(Graham Greene)의 『권능과 영광』(*The Power and the Glory*) 1부의 1장과 2장을 분석하겠다.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서 작품분석은 되도록 핵심적인 것만을 다루겠다.

II. 이론적 배경

소설의 장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필딩(Henry Fielding)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조셉 앤드루스』(*Joseph Andrews*)에서 장이 구분될 때 독자는 숨을 돌릴 수 있는 쉼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작가는 호머나 버질이 그들의 서사시를 구분한 예를 따라서 장을 구분하는 것인데, 이렇게 장을 구분함으로써 장의 서두에서 자기가 앞으로 쓸 것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p. 78-79). 장에 관한 이러한 언급

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닐 뿐 현대소설의 장을 이해하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세기를 거쳐 20세기에 오면서 소설의 장은 아주 정교해졌지만, 작가들도 비평가들도 장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1966년에 와서 스테빅(Philip Stevick)이 『서양 인문학 평론』(*The Western Humanities Review*)에 <소설의 장에 관한 이론>("The Theory of Fictional Chapters")을 기고했고, 다음해에 그가 편집한 『소설의 이론』(*The Theory of the Novel*)에 그 글을 포함시켰다. 그는 이 글에서 작가는 인간의 경험과 예술에 패턴을 부여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설에서 장을 구분하는 것이라고(p. 172), 그리고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장의 구분으로 인해서 소설의 이해가 용이해진다고 언급했다(p. 174). 그의 장에 대한 언급은 필딩의 것보다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론에 그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장의 형식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다면... 전체 작품에 대한 이해가... 아주 어려울 것”(p. 174)이라는 그의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하면, 장의 이해가 작품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장(chapter)은 형식면에서 소설의 단위이다. 글을 쓰는 데에는 형식적인 단위가 중요하다. 한 문장을 시작할 때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마침 때는 마침표를 찍어서 문장을 구별한다.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데, 한 단락을 시작할 때는 글자를 들여 써서 단락을 구별하는 약속된 형식을 따른다. 그리고 단락들이 모여서 장(chapter)을 이루는데, 대부분의 소설은 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장의 순서는 숫자로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스테빅에 의하면, 소설의 장 구분은 18세기에는 비교적 느슨하거나 무시되기도 했지만, 19세기에 오면 인물의 성장과 변화가 강조되면서 “새로운 인과적, 발전적 관심이 소설의 구분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p. 183). 그런데 20세기에 오면 소설에서 시점(point of view)이 중시되면서 장의 구분은 더욱 정교해진다. 인물의 성장이나 변화 그리고 시점은 내용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장 구분이 단지 형식적인 꾸밈에 그치지 않고 작품의 내용과 결부되는 것임을 본다.

소설의 장은 또한 의미의 단위이기도 하다. 단어가 최소의 의미의 단위라고 한다면, 문장은 단어들이 모여서 만드는 좀더 큰 의미의 단위이며, 단락은 문장들이 모여서 만드는 의미의 단위이다. 그리고 장은 단락들이 모인 의미의 단위이고, 한 권의 소설은 장들이 모여서 이루는 가장 큰 의미의 단위이다. 소설의 장은, 마치 단편소설처럼,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통일성을 부여한 의미의 단위이다. 그런데 만일 소설에 장의 구분이 없다면, 독자들은 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원래 성서에는 절과 장의 구분이 없었는데, 성서학자들이 의미의 단위에 따라 절과 장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독자들이 성서의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소설에서의 장 구분 역시, 스테빅의 말대로,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독자의 입장에서, 개별

문장의 이해가 문단의 이해를 위한 선결 조건인 것처럼, 각 장의 이해가 전체 작품의 이해에 필수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장 분석에 임할 필요가 있다.

소설의 각 장은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마치 한 편의 단편소설을 분석하듯이 각 장을 분석해야 한다. 작품의 “유기적 형식”(organic form)을 강조한 신비평가들(Guen, p. 83)의 예를 따라서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소설의 구조를 구성하는 플롯, 인물, 시점, 배경, 주제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Brooks, p. xv)를 파악해야 한다. 정독을 통해서 이 외에 아이러니, 환상, 알레고리, 스타일, 상징, 음조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독은 신비평가들이 시나 단편소설에 적용시킨 것인데, 그들이 원문의 면밀한 이해를 권장함으로써 “시를 읽는 법을 충실하게 교육시킨 것”(Forster, p. 19)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이 『시의 이해』(*Understanding Poetry*)나 『소설의 이해』(*Understanding Fiction*) 같은 책에서 시나 단편소설의 분석방법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소설의 분석을 기피한 것은 소설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그들의 정교한 분석방법을 소설에 적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설의 장은 단편소설처럼 비교적 짧고 통일성을 이루는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장에 단편소설의 분석방법을 적용시키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

유기적 형식으로서의 작품에 대한 관점은 한 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각 장이 전체 작품을 이루는 유기적인 요소라는 데에도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각 장은 전체 작품의 전체 의미에 기여하고 전체 작품의 맥락 안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모든 장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하나하나의 장은 작품구성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독자가 작품을 읽어 나갈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장은 나머지 장들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지니며, 중간에 나오는 한 장의 의미는 그 앞뒤에 오는 장들과의 관계 안에서 확정된다. 앞 장과 뒷장은 장면, 중심인물, 시점 등이 다를 수 있고, 대조되는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고, 뒷장에서 앞 장의 의미가 강화되거나 확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 장을 해석할 때 해당 장에만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앞뒤 장과의 관계를 살피고 전체 작품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보이는 장이나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의미가 담긴 장들이나 중간 몇 부분을 발췌해서 학생들에게 읽히고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해 준다면, 학생들에게 문학작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염려가 있으며, 이렇게 할 때 독창적인 해석이 나올 수 없다.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몇 가지 추상적인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간주해 버리기 쉽다. 소설 연구가들은 소설에서 추상적인 도덕률이나 사상을 끌어내는 소위 “주제 사냥”(theme hunting)을 경계한다. 케니는 주제를 “작가가 작품을 쓰는 과정에서 그리고 독자가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전체적인 의미”(p. 94)라고 규정한다. 독자의 편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 전체를 차례대로 읽는 일이다. 우리는 때때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간과해버렸

던 장면이나 장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남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에서 작품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정독을 통한 장 분석을 위해서 신비평가들의 예를 들었지만, 소설에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소설은 정교한 형식에 매이지 않고 복잡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산문이기 때문에 시보다 내용의 전달이 중시된다. 물론 소설에도 비유, 상징 같은 시적 언어가 많이 나오지만, 소설에서는 시에서보다 폭넓게 인물들의 행동이나 생각, 사회적 배경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위에서 장을 형식의 단위일 뿐 아니라 의미의 단위임을 강조한 것은 각 장에 나타나는 내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 장을 분석할 때, 그 장 안에 구현되어 있는 의미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설에서의 해석은 형식에 대한 해석을 뛰어넘는 내용에 대한 해석이다. 장의 분석에서 신비평가들의 형식주의적인 분석방법을 채용하지만, 그 분석의 목표는 의미를 해석해 내는 일이다.

III. 수업 진행에서의 유의 사항

장의 분석은 첫 장에서부터 하나씩 다루어 나간다. 이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영어 독해력의 정도를 감안해서 교재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작품의 우수성을 염두에 둔 나머지 학생들이 읽기 어려운 소설을 교재로 택할 경우,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어느 중급의 대학에서 영문과 2학년생들이 미소설 교재로 멜빌(Herman Melville)의 『모비딕』(*Moby-Dick*)을 읽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아마도 그 학생들은 영어와 작품의 난이도로 인해서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 작품이 길기도 해서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어느 작품을 선정해도 한국 학생들에게 아주 쉬울 수는 없을 것이다. 수업을 진행해 나갈 때도 선생은 작품의 난이도와 학생들의 독해력을 가늠해서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선생이 학생들의 눈높이를 가늠하지 못한다면 그 수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학생들이 주어진 장을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장 분석의 선행조건이다. 그래서 선생은 먼저 학생들에게 주어진 부분을 읽어 오도록 과제를 내고 결과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새로운 작품을 들어갈 때는 우선 선생이 두세 주 동안 각 장에 대한 분석의 모범을 보인다. 선생이 이렇게 분석의 모범을 보이는 동안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말 번역으로라도 작품을 통독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선생이 분석의 모범을 보인 다음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해서 발표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분석을 위한 안내를 위해서 우리말로 된 석사논문이나 박사논문 후

은 일반 논문을 참고하도록 권하고 학생들의 수준이 높으면(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좋은 외국 논문 몇 편을 천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부과정에서는 좋은 외국 논문을 천거해도 어렵다고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로 된 좋은 문헌을 천거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어설픈 문헌을 읽으면 배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좋은 문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논문이나 해설서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헌에서 각 장에 대한 자상한 분석을 찾아낼 수는 없는 법이다. 다시 말하면, 장 분석을 짜깁기만으로 채울 수는 없다. 각 장을 분석할 때 참고문헌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분석의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헌을 참고하면서 스스로 찾아내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들이 발표할 때는 발표문을 작성해서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면 좋다. 발표자와 학생들 사이에 질의응답이 끝난 후, 선생은 미진한 점 혹은 간과된 점을 마지막으로 지적하면서 정리해 주어야 한다. 선생이 마무리를 소홀히 하면, 학생들이 자기만족이나 매너리즘에 빠질 염려가 있는 반면,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면 학생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아 그 작품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특히 현대소설 시간에는 발표문을 작성할 때 먼저 그 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나서 분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제시적 기법, 시점의 변화 등이 발달한 20세기 소설에 오면 장의 내용을 안다 해도 거기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요약과 분석을 명확히 구분해 줌으로써 분석력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다. 요약은 이야기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만, 분석은 인물들 사이의 대조나 유사점, 시점이나 장면이 바뀌는 경우에 그것들 사이의 공통점이나 차이를 밝히고, 반복적이거나 유사한 상징, 행동, 언급 등을 정리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분석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설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고 문맥을 살펴서 그 장 안에 구현되어 있는 의미를 해석해 내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요약과 분석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요약은 아주 짧아야 한다. 학생들은 흔히 요약을 길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분석 부분에서 할 말이 적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분석이지 요약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야 한다. 요약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도 좋은 공부이기 때문에, 요약과 분석을 구분하게 함으로써 동시에 두 가지 훈련을 시킬 수 있다.

한 작품의 장별 분석을 모두 마치면, 전체 작품에 대해서 고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리를 위해서는 소설의 요소별 혹은 주요 주제별로 몇 개의 질문을 하고 그 중 두세 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때 학생들은 장별로 파악한 것을 종합,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을 안내하기 위해서 선생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각 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분석결과를 작품 전체와 연관시켜 줌으로써 학생들의 장 해석에 질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종합의 단계에서 아마도 학생들은 최소한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참고문헌에서 읽었던 것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상당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을 철저히 분석시키면 학생들의 독해능력에 따라서 한 학기에 작품을 하나밖에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두세 권을 다룰 수도 있다. 분량을 많이 하려는 데에 주력하지 말고 학생들이 읽어낼 수 있는 정도에 맞게 진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작품이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따라오기에 힘들만큼 여러 권의 작품을 다룬다면, 학생들은 작품의 분석적인 해석보다는 내용 파악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발표나 보고서는 참고문헌의 짜깁기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습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선생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응답하는 학생이 별로 없다. 그들은 선생이 하는 말을 받아쓰는 데에 전념하고 그것을 암기해서 학점을 얻는 데에만 신경을 쓴다. 한두 권의 작품이라도 학생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학습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습관이 바뀔 수 있다.

문학은 독자가 직접 느끼고 경험하지 않고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배우는 작품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장별 분석은 학생들이 문헌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짜깁기해서 한 장의 분석을 완성할 수는 없게 만든다. 그들 스스로 찾아내고 정리하게 만든다. 처음 시작할 때는 힘이 들겠지만, 요령을 터득하면 재미있는 작업이다. 장을 분석하다 보면, 그 작품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작품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학의 묘미를 터득하게 된다. 이것이 문학공부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장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이 때때로 다른 문헌에 언급된 해석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때에 그들은 보람을 느끼면서 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된다.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에 흥미를 느껴서 문학세계에 빠져들게 만드는 일이다.

IV. 작품 분석의 예

1. 조이스의 <자매들>

장이 하나의 통일된 단위라는 면에서 장 분석이 단편소설의 분석과 유사하기 때문에, 장 분석의 안내를 위해서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 나오는 <자매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단편소설에서는 시점이나 장면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 작

품에서는 시점은 일정하되 장면이 여러 번 바뀐다. 소설의 장에서도 시점이나 장면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장면의 바뀔 때 다른 <자매들>의 분석은 장의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 이 작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더블린 사람들』에 나오는 15편의 단편소설들이 각각 독립된 작품이면서도 “통일성”(Ghiselin, p. 316)을 유지하고 있어서 각 단편소설은 『더블린 사람들』의 한 장으로도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매들>에서 화자의 생각을 담은 하나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첫 장면의 문조(tone)는 어둡고 비관적이다. 맨 처음 문장에 나오는 “희망 없음”(p. 9)이 이러한 문조를 주도한다. 다음 문장에 두 번 거듭되는 “밤마다” 그리고 셋째 문장의 “죽은,” “어두워진,” “시체” 같은 단어들 이 절망적인 문조를 이끌어 나간다. 첫 문장에 언급된 세 번째의 줄도가 “마비”와 연관되고, 이 단어는 소년의 연상 가운데서 “노우문”(gnomon: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한 쪽 귀퉁이가 잘려나간 사변형)으로 “성직 매매죄”(p. 9)로 이어진다. 조이스는 “paralysis,” “gnomon,” 그리고 “simony”를 이탤릭체로 표기함으로써 이 단어들에 대한 독자의 주목을 환기시키고 있다. 작가가 강조하려는 것은 화자의 연상 속에서 증풍에 걸려서 육체적으로 마비된 플린(Flynn) 신부가 성직 매매라는 정신적 마비에 연루된다는 점이다. 한 신부가 죄에 연루되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어린 소년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 장면의 문조와 신부의 죄에 관한 문제가 이 작품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장면에는 전체 작품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코터(Cotter) 씨와 함께 숙부, 숙모, 그리고 화자 네 사람이 저녁식사를 하는 둘째 장면에서 플린 신부에 대한 화자의 막연한 호기심이 궁금증으로 발전한다. 코터 씨는 여기서 플린 신부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덕담을 하기보다는 그에겐 무슨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괴이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다. 숙부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숙모와 화자는 모르고 있다. 소년은 신부의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코터 영감이 말끝을 흐리니까 감질이 나서 그 노인을 “짜증나는 늙은 바보!”(p. 10)라고 역정을 낸다. 더구나 그 노인과 숙부가 합세해서 화자 같은 어린이들이 그런 신부를 가까이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라고 말하자, 플린 신부를 자주 찾아갔던 화자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짜증나는 늙은 붉은 코 얼굴이!”(p. 11)라고 전보다 더 심하게 역정을 낸다. 이러한 소년의 반응은 서술자로의 소년이 자신의 느낌을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되거나 대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숙모 역시 알고 싶어서 두 번이나 질문을 하지만, 화자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만 있다.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화자의 궁금증을 간과할 염려가 있다. 그러나 실상 그의 “짜증나는”을 반복하는 화자의 궁금증의 강도는 숙모의 것보다 더 강하다. 특히 이 장면

이 앞의 “짜증나는 늙은 바보!”보다 더 짜증을 내는 “짜증나는 늙은 붉은 코 열간 이!”로 끝나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야기는 세 번째 꿈의 장면으로 바뀌는데, 꿈을 통해서 화자의 궁금증은 더욱 강화된다. 꿈의 내용은 풀린 신부가 소년에게 그의 죄를 고백하고 소년이 신부에게 면죄선언을 해주는 것이다. 물론 소년이 잠들기 전에 첫 장면의 마지막에서부터 그 신부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꾸는 것이겠지만, 꿈을 꾸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신부에 대한 화자의 궁금증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꿈의 장면은 화자가 지니고 있던 신부의 비밀에 대한 궁금증을 극대화하는 부분이다. 설명적 방법을 지양하고 제시적 방법(showing)에 충실한 이 작품에서 저자가 화자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두 번째 장면부터 설명(telling)을 피하고 있지만, 독자는 제시되어 있는 사건들이나 장면들을 연결시키고 의미를 해석해 내야 한다.

꿈을 통해서 그의 의심이 더욱 커진 화자는 그 다음 날 아침 상가 주변을 맴돌면서 풀린 신부와 자신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 어린 소년은 혼자서 상가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상가 밖에 서서 그 신부의 방에 가서 보았던 것 그리고 신부와 나눈 대화를 상기한다. 그 신부의 방은 어둡고 그 옷은 담배 가루로 물들어져 우중충했다. 그리고 그가 설명해 준 교리나 교회의 관행은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가 신부와 친해진 후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지만, 신부의 방을 처음 찾아갔을 때 신부의 모습을 보고 불안했던 것을 기억해 낸다. 화자는 지금 햇빛이 비치는 밝은 길거리에서 서서 어두운 신부의 방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한다. 이러한 밝음과 어두움의 대조는 풀린 신부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이 햇빛 비치는 쪽에서 서서 신부가 죽어서 그가 해방된 것 같이 느끼고 있다. 이 장면의 마지막에서 화자가 어제 밤에 그가 꾸는 꿈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꿈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해 내려고 하는 데서 풀린 신부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그의 궁금증이 여전한 것을 읽을 수 있다.

저녁때 숙모와 함께 상가에 가서 화자는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풀린 신부의 죄를 확인한다. 화자가 신부의 시신을 보러 갔을 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신부가 “끔찍한”(p. 14)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신부의 누이 일라이저(Eliza)는 신부가 평화롭게 죽었다고, 신부의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p. 15), 그의 시체를 “아름다운 시체”(p. 15)라고 말하지만, 화자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숙모는 일라이저의 말에 동의하고 그녀를 위로한다. 상가에 갈 때 화자는 신부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숙모는 그녀가 가까이 모시던 신부의 조문을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생각이 애당초 달랐지만, 신부의 표정을 보고 난 다음에는 화자의 신부에 대한 생각과 숙모의 생각이 확연히 달라진다. 화자는 신부의 표정에서 그가 알고자 하는 비밀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일라이저는 죽

은 신부에 관한 덕담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그의 삶에 이상이 생긴 것은 신부직 수행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성작을 갠 것도 수종 드는 소년의 잘못이었다고 신부를 변명한다. 그러나 그녀의 말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이미 발견한 화자는 그녀의 변명은 빼고 그의 삶에 이상이 생긴 것과 성작을 갠다는 사실, 즉 신부의 비밀을 밝혀줄 만한 단서에만 주목하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일라이저에게서 어느 날 저녁 풀린 신부가 실제로 고백석에 앉아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의 꿈과 그 이야기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일라이저가 “무엇인가 그분에게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말할 때 그녀가 말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 작품의 제목 <자매들>에는 무비판적인 신앙을 지닌 더블린 사람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저녁식사 장면에서 신부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숙모와 소년인데, 숙모는 경건한 신앙인어서 고인의 명복을 빌 때도 “경건한 어조로”(p. 10) 말하고 신부에게 담배를 조달하는 등 신부를 지성으로 모시는 자매들(교회에서는 여성 신도를 자매라고 부름) 중의 한 사람이다. 그녀가 화자와 함께 상가에 갈 때, 그녀에게서는 신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숙모는 소년과 달리 일라이저의 신부를 위한 변명에 동의하고 그녀를 위로한다. 일라이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가 신부의 누이라는 점과 일관된 변명으로 보아 신부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화자와 숙모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말을 들었지만, 숙모에게는 신부의 언행을 비판적으로 볼 안목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풀린 신부에 대한 숙모의 태도는 신부의 두 누이의 것과 다르지 않다. 작품의 말미에서 소년이 코터 씨와 숙부 편에 합류함으로써 신부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부의 두 누이와 숙모를 포함해서 세 자매뿐이다. 그들은 신부가 죄를 지었어도 그를 변명하는 데에 급급하고, 교회와 사회가 부패했어도 그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작품의 제목은 『더블린 사람들』의 마지막 작품의 제목 <죽은 사람들> (“The Dead”)과 상통한다. <자매들>의 중심에는 화자가 있고 화자는 신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바람직한 인식의 변화를 보인다. 그리고 그 외에 코터 씨나 숙부 같은 신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작가는 무지한 자매들을 작품의 제목으로 내세워서 신부와 교회와 더블린 사회의 실상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죽은 사람들>에도 아이버스(Ivers) 양이나 게이브리얼(Gabriel)의 부인처럼 애란의 전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공 게이브리얼도 마지막에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지만, 제목 <죽은 사람들>은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무지한, 절망적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두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실상을 깨닫는 주인공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제목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러한 제목을 통해서

조이스는 무지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비판적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각성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 그린의 『권능과 영광』 1부의 1장과 2장

제1장: 항구

1장의 첫 단락은 이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 준다. 폭염이 내리쬐는 멕시코,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가 우글거리는 마을, 독수리의 밥이 되기를 거부하는 치과의사 텐치(Tench), 쪼개진 그의 손톱,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흉상이 즐비하게 서 있는 광장. 물에서는 독수리가 썩은 고기를 찾고 물에서는 상어가 고기를 찾는다. 황량하고 살벌한 곳,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희망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땅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 버려진 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한다.

이 장의 중심인물 텐치의 표정에서도 희망적인 면을 찾아볼 수 없다. 습관적으로 입을 헤벌리고 있는 그의 얼굴은 텅 비어 있다. 이 바보 같은 표정을 짓고 다니는 텐치는 건망증이 심하다. 그가 집을 나와서 가까이에 있는 부두에 이르기 전 그는 에테르 실린더를 인수하려고 나온 그의 외출 목적을 잊는다. 외출 목적을 간신히 기억해 내지만, 몇 분 후에 다시 잊는다. 1장의 처음 부분에서 그의 멍청한 표정과 함께 그의 건망증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부두에서 만난 낯선 사나이가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병원을 보여 주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잠담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 낯선 사람이 떠난 후 배의 고동 소리를 듣고 부두에 나갔을 때는 이미 배가 항구를 떠나서 한참 가고 있다. 그는 허탈한 기분으로 배를 향해 소리쳐 보지만, 쓸데없는 짓이다. 텐치는 주변적인 것에만 매달리다 중요한 것을 잃고 마는 절망적인 인물이다.

작가는 텐치의 걸도는 삶을 중복해서 조명하고 있다. 먼저 그가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영국을 떠나서 수 년 동안 외국에 떠돌아다닌다는 데서 그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도는 인간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그의 걸도는 삶의 단면이 그날 오후에 에테르 실린더를 구하려 나갔다가 결국 구하지 못하고 떠나는 배를 향해서 공허하게 외치는 데서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니고 다니는 두 아들의 사진에 대한 삽화에서 요점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물조리를 붙들고 싸우는 두 아들의 사진을 한 장 가지고 다닌다. 그런데 물조리에 대해서는 색깔, 값, 그것을 산 상점까지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두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삼중의 장치를 통해서 중심을 벗어나 걸도는 한심한 그의 삶이 조명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텐치가 부두에서 만난 낯선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한다. 이 사나이는 수영이 덩수룩하고 병약할 뿐 아니라 안절부절 못하고 들떠 있다. 이 사람의 이

가 썩어가는 것을 관찰한 치과 의사 텐치는 죽음이 이 사나이의 입안에까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건강 상태나 행동으로 보아서 아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할, 자신의 의지는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텐치는 이 사나이에겐 그의 병원을 구경시키고 일본에서 사온 치과기구를 자랑하면서 한껏 뽐낸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의 외면과는 달리 뚜렷한 주건을 지닌 인물임이 드러난다. 한 인디언 소년이 찾아와서 그의 어머니가 아파서 의사를 모시러 왔다고 말하자, 텐치는 자신을 돌팔이 의사라고 소개했던 이 사나이에겐 당신이 가야겠다고 말한다. 그때 그 사나이는 가기를 꺼리면서 텐치의 눈치를 살피지만, 그 소년이 실은 자기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있다고 말하자 그의 태도가 돌변한다. 가겠다고는 것이다. 다 죽어간다면 의사가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를 만류하면서 가면 배를 놓치게 된다고 텐치가 그를 설득하려 하지만, 그 사나이는 어디서 그런 힘과 용기가 나왔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p. 17)라고 통명스럽게 내뱉으면서 그 소년을 따라 나선다. 그가 두고 간 라틴어 책으로 보아 그 사나이가 신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신부는 그가 타고 탈출하려던 배를 포기하고 병약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사명이 기다리는 절망의 땅을 찾아가는 것이다.

주로 텐치의 시점을 통해서 관찰되는 1장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 떠돌아다니면서 절망적인 삶을 사는 텐치와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주인공 위스키 신부가 대조되어 있다. 1장에서 텐치는 부두에서 만난 사나이를 “낯선 사람”(stranger)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나이는 멕시코인이고 텐치는 영국인이기 때문에, 진짜 “이방인”(stranger)은 텐치이다. 이러한 반어적 말놀음은 텐치와 낯선 사나이의 관계가 역전되는 반어적인 상황(ironical situation)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이 첫 장에서 방관자들 중의 하나인 텐치의 공허한 삶을 보여 주면서 그의 삶과 주인공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다. 1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대조는 앞으로 이 소설에서 다루어질 방관자들과 위스키 신부의 본격적인 대조의 예시일 뿐 아니라, 얼핏 보기에 경멸할 만한, 타락한 사제인 것 같은 위스키 신부가 지닌 의외성의 예시이기도 하다.

제2장 수도

2장은 네 개의 장면으로 나뉘어 있다. 첫 두 장면은 경찰서장과 경위에 관한 것이고, 셋째 장면은 루이스(Luis)의 가정에 관한 것이며, 마지막 장면은 호세(José) 신부에 관한 것이다. 각 장면에서는 중심인물들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 장면에 등장하는 서장은 그의 부하 경위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는 무책임한 인간이다. 그는 근무시간에 집무실을 지키지 않고 당구를 친다. 그리고 그의 집무실 벽

에 그려져 있는 두 개의 심장 그림은 방탕과 부도덕을 내포한다. 그가 시달리는 치통은 그의 이의 부패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의 근무태만이나 심장의 그림과 연관되어서 그의 관리로서의 부패를 내포한다. 서장이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면서, 서장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경위는 바람직한 인물인 것처럼 보인다. 이 첫 장면에서 서장의 무책임과 부패가 드러나면서 반대로 경위의 장점이 돋보인다.

그런데 경위의 행동의 동기는 증오이다. 그는 신부들을 철저히 증오하기 때문에 살인강도를 체포하는 것보다 위스키 신부를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신부 체포의 전권을 위임받는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을 사랑한다는 그가 제시한 인질계획에 따르면 신부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농민들을 살해해야 한다. 서장은 그 계획을 듣고 놀라지만, 경위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고집한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모한 사람이다. 그의 결의에는 사심이 없는 것같이 보이고 그의 헌신은 “일종의 덕”(p. 23)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증오와 살의는 절대로 덕스러울 수 없기 때문에, 실상 그의 결의와 헌신은 왜곡되어 있다. 무책임한 서장과 대조되는 장면에서 경위는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증오에 기반을 둔 그의 헌신과 책임의식은 살의를 담은 끔찍한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적 정치이념에 사로잡혀서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이다. 그는 지구과학적 지식과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어린 시절의 기독교 신앙을 잃고 공산주의자가 되어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세계를 마련해 주려고 반기독교적 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그의 책임감과 헌신의 강도는 신부들의 것과 유사할 정도이다. 그는 사제와 마찬가지로 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사제들처럼 계율에 따라서 금욕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독신생활에 익숙해 있다는 것은 성적 본능에 무감각하거나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처형 직전에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조소하는 데서 그에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경위에 관한 장면이 “경위는...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전혀 동정심이 없었다”(p. 25)로 끝맺고 있는데, 이 마지막 문장에서 정치이념으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상실한 경위의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자기 집 뒷방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순교자전을 읽어주는 루이스의 어머니는 경위와 달리 열렬한 신앙이지만,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그와 다르지 않다. 순교자전의 주인공 후안(Juan)은 어린 시절부터 겸손과 신앙의 모범이어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주는, 어린이다운 면이 없는 아이였다. 그는 충살을 당할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만세를 외친다. 루이스의 어머니는 후안의 인간다운 면이 전혀 없는 신앙의 투사로서의 삶을 그대로 믿고 그 삶에 깊이 감동한다. 그러나 아들 루이스는 자신의 삶과 너무도 다른 이 순교자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의 아버지 역시 순교자전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p. 28)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편은 부인보다 세상경험도 지식도 많고, 지도를 읽을 줄도 알고, 지금 자기들이 버려져 있다는 사실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인의 생각이 편협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인간이해의 외면이라는 면에서 정치적 맹신 뿐 아니라 종교적 맹신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호세 신부는 자신의 책임을 버리고 육체적 안전을 택한 사람이다. 40년 동안 사제생활을 해 온 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의 압력에 못 이겨 결혼생활을 한다는 것은 치욕적이고 절망적인 일이다. 그래서 호세 신부는 자신이 지옥보다도 더 무서운 곳으로 가야 할 극악한 죄인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알면서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순교하지 못하고 정부당국과 타협했다. 그가 육체의 조건에 압도되어 자신의 책임을 버렸다는 면에서 후안과는 대조되는 인물이고, 기력이 쇠진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디언 소년을 따라 나서는 1장에 그려진 주인공과도 다르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후안처럼 비인간화된 신앙인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호세 신부처럼 육체적 안전을 위해서 신념이나 책임을 외면하는 것 역시 문제가 크다는 점이다.

2장에서는 책임의식과 육체의 연약함이 중심을 이룬다. 경찰서장, 경위, 그리고 호세 신부는 책임의식이 없거나, 책임의식이 강하나 동기와 이행 방법이 왜곡되어 있거나, 자신의 책임을 버리고 괴로워한다는 면에서 책임의식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경위, 루이스의 어머니, 그리고 호세 신부는 육체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육체의 조건에 압도당한다는 면에서 육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 장에 등장하는 군소인물들의 삶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 진한 인간애를 터득하고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면서 신부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수행하는 주인공 위스키 신부의 삶을 부각시키기 위한 배경이다.

V. 나가는 말

우리는 <자매들>의 분석을 통해서 작품의 말미에서 화자가 풀린 신부의 비밀을 발견해 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 작품의 말미에서 화자가 신부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참고문헌에서 화자의 발견에 대한 언급(Brandabur, p. 334)을 읽고 어리둥절해진다. 아마도 일라이저가 신부에게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다고 말한 데서 소년이 신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왜 작가가 일라이저의 말을 중간에서 생략했는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참고문헌의 권위에 의지해서 이 작품에 대한 발표나 논문에서 화자는 마지막에 신부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속도도 소년과 마찬가지로 신부의 정체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는 그들은 이 작품의 중심인물이 소년인데 왜 제목이 <자매들>인가에 대해서 선생에게 질문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은 앞에서 보여 준 것처럼 이 작품의 장면 하나하나를 정독하며 분석하는 데서 나온다.

『권능과 영광』의 1부 1장의 핵심은 자신의 의지를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무기력한 사나이가 텐치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장면에서 실상 무기력한 사람은 우쭐대던 텐치이고 이 사나이는 나약한 육체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참고문헌에서도 그것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장에 대해서 발표하는 학생들은 텐치에 관한 것만을 언급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텐치의 건망증과 무책임한 떠돌이 삶이 신부의 책임감과 대조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텐치의 삶의 심각성이 감소될 뿐 아니라, 이 소설에서 앞으로 다루어질 방관자들과 주인공의 대조가 이 장에 축약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이 소설에서 위스키 신부와 경위가 대등한 두 축을 이룬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그들은 드비티스(A. A. DeVitis)(p. 87)를 비롯한 일부 영미 비평가들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비평가들이 위스키 신부와 경위를 대등하게 보는 것은 1부 2장에서 경위가 정치적 이념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서, 루이스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외면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경위가 방관자들 중의 하나라는 것이 1부의 4장에서 반복해서 그리고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들은 그것도 간과해 버렸다. 이 소설에서는 특히 방관자들의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방관자들 중의 하나인 경위가 주인공과 대등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위가 다른 방관자들에 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의 공산주의 이념이 신부의 가톨릭 신앙과 대립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위스키 신부를 만난 후에 신부에게 압도당하고 마는, 자신이 미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방관자이다. 작품의 각 장에 주목하지 않을 때, 이렇게 작품의 실제 내용과는 다른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때로는 무시해도 좋을 것처럼 보이는 장에 그 작품을 열수 있는 열쇠가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다. 최소한 1부의 2장을 정독한 사람은 드비티스가 범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영미소설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서 영미비평가들의 작품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특히 영문학에서 영어 자체가 그들의 언어이고, 작품에서 그들의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영문학 작품에 대한 영미인들의 해석을 우리가 참

고하고 의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잘못 보거나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들의 권위에 눌려서 그들의 오류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지적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자유롭게 교환되는 지구촌 시대에 영문학 연구에서도 외국 연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유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계속 모방이나 짜깁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영미소설의 수업에서 장 분석은 한국 학생들의 고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외국에서 공부한 영문학자들이 날로 늘어나면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능력 있는 학자들이 배출되면서 한국 영문학계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학부 학생들의 독해 능력의 한계, 문학공부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서 대학에서 영문학 특히 소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의기소침해 있거나 당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우리가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일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확히 보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교수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학을 다녀온 분들은 영미에서 공부한 방법을 한국의 강의 시간에 적용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국어로 공부하는 영문학 수업방식을 외국어로 영어를 읽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를 가늠하지 못하는 수업은 실패하고 만다. 장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모방이나 짜깁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장 분석에 익숙해질 때 한국의 학생들도 영미인들이 쓴 참고문헌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면서 자기 나름의 안목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최재석. (1993). *그레엄 그린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최정선. (2004). 대학 강단에서 마크 트웨인 가르치기. *영어어문교육*, 10(2), 159-176.
- 포스터, 리처즈. (1990). *뉴 크리티시즘의 재평가*. 정태진 역. 서울: 한신문화사.
- Brandabur, E. (1969). The sisters. In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Eds.). *Dubliners-text, criticism, and notes* (pp. 333-343). Harmondsworth: Viking.
- Brooks, C., & Warren, R. P. (1959). *Understanding fiction*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Brooks, C., & Warren, R. P. (1960). *Understanding poetry* (3rd ed.). New York: Holt.
- DeVitis, A. A. (1964) *Graham Greene*. New York: Twayne.

- Fielding, H. (1960). *Joseph Andrews*.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 Forster, E. M. (1963). *Aspects of the novel*. Harmondsworth: Penguin.
- Ghiselin, B. (1969). The unity of Joyce's *Dubliners*. In R. Scholes and A. Walton Litz (Eds.). *Dubliners-text, criticism, and notes* (pp. 316-332). Harmondsworth: Viking.
- Greene, G. (1971). *The power and the glory*. Harmondsworth: Penguin.
- Guen, W. L., Labor, E. G., Morgan, L., Reesman, J. C., & Willingham, J. R. (1999).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Four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enney, W. (1966). *How to analyze fiction*. New York: Monarch Press.
- Reed, W. (1977). The problem with poetics of the novel. Mark Spilka (Ed.). *Towards a poetics of fiction* (pp. 62-74).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Rimmon-Kenan, S. (1983).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New York: Methuen.
- Scholes, R. (1977). An approach through genre. In M. Spilka (Ed.). *Towards a poetics of fiction* (pp. 39-51).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Spilka, M. (1977). Introduction. In M. Spilka (Ed.). *Towards a poetics of fiction* (pp. vii-xi).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Stevick, P. (Ed.). (1967). *The theory of the novel*. New York: The Free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최재석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305-3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 아파트 810-1401

Tel: (042) 483-7838

Email: jschoi@cnu.ac.kr

Received in Jan. 2005

Reviewed by Feb. 2005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 2005